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34~36]

최 씨 :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 오늘 오후(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잡혀 온 다른 동학꾼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正己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숙이 나열. 대뜰에는 옆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꿇어앉았고, 그 뒤로 넉넉히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중에 섞여 있다.

수령 :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 (청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십시오.

사령 :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 (깜짝 아니 한다)

사령 :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 (옆의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사령 :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수령 : 처형해라.

급창 : 처형하옵신다—.

참령 : (병정들더러) 형장(刑場)으랴!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 선 구경꾼들은 와—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러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오 :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

최 씨 :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 맨 여편네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담박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할머니가 어데 나가게 하시드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영오 : 그런데 참 할머니.

최 씨 : 오-냐.

영오 :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외, 외, (더듬다가) 외증조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예지?

최 씨 : 글썸,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데 바루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흠씬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사십 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썸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시자 보름 만엔지 돌아가신걸. 그래서 네 외증조할아버지 제향은 바루 시월 열사흘 날이란다.

영오 : 그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 씨 : ㉠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웅위해 가지고 사정 바루 건너편 과녁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각급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고는 병정들은 열댓 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마는, 아마 한 이십 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죽— 늘어서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었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과녁. 하수는 흑막(黑幕).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과녁에서 던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 놓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갑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낱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가니?

- 채만식, 「제향날」 -

* 전경 : 앞 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 장을 의미함.

1.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②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④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낯두리에 해당한다.
- ⑤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 ②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 ③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향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①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 ②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재에 찾아온 제향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 ④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⑤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향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우선 이 작품은 3부라고 해요.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동학 농민 운동을 과거로 다루고, 현재는 그때로부터 43년이 지난 시점이고 제향날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동학 농민 운동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가 과거에 있던 동학 농민 운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과거 회상 장면에 주목하고, 현재에는 어떻게 그 과거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집중하면서 읽어 봅시다.

최 씨 :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 오늘 오매[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잤혀 온 다른 동학꾼 들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 무대 급히 압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正己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숙이 나열. 대뜰에는 엎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꿇어앉았고, 그 뒤로 넉넉히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중에 섞여 있다.

수령 :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 (칭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

뢰랍신다—.

사령 :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 (꿈쩍 아니 한다)

사령 :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 (옆의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사령 :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수령 : 처형해라.

급창 : 처형하랍신다—.

참령 : (병정들더러) 형장(刑場)으릇!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 선 구경꾼들은 와—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려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 무대 급히 압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오 :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

최 씨 :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 밴 여편네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담박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할머니가 어데 나가게 하시드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처음에 최 씨가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외할아버지의 옛 이야기가 제2장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회상이 바로 시작되어요.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무대에는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된 채로 꿇어앉아 있고, 그 뒤로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있다고 해요. 아마 처형을 당하는 장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대 설명이 끝나고 수령이 죄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싫은 말이 있냐 묻고, 죄수들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수령은 가차 없이 처형하라고 하죠. 죄수들의 가족들은 죄수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만, 병정들에게 가로막혀 가지 못하죠. 최 씨는 이 장면을 현장에서 보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만 내어다봤다고 하네요. 외증조할머니가 못 나가게 해서 말이죠. 동학농민 운동에 가담한 인물들이 처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 계속 봅시다.

영오 : 그런데 참 할머니.

최 씨 : 오-나.

영오 :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외, 외, (더듬다가) 외증조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야지?

최 씨 : 글썄,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데 바루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흠씬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사십 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썄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시자 보름 만에 돌아가신걸. 그래서 네 외증조할아버지 제향은 바루 시월 열사흘 날이란다.

영오 : 그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 씨 : ㉠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옹위헤 가지고 사정 바루 건너편 과녁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각급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고는 병정들은 열댓 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마는, 아마 한 이십 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죽—늘어서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었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과녁. 하수는 흑막(黑幕).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과녁에서 던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 놓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

갑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낱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가니?

- 채만식, 「제향날」 -

* 전경 : 앞 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 장을 의미함.

영오는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처형했으면, 외증조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고 최 씨에게 물어봅니다. 최 씨는 그게 맞지만, 외증조할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 사십 대나 맞았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곤장 사십 대를 맞아도 죽을 판에, 노인이 사십 대를 맞았으니 성할 리가 없겠죠? 옥에서 나오신지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처형당하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병정들이 죄수들에게 총을 겨누고 당연히 총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최 씨는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았는데 이게 웬걸, 총소리가 나지 않았네요. 병정은 죄수들을 조롱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왔다갔다하면서 서술이 된다는 것만 캐치해내면 쉬운 지문입니다.

1.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최 씨와 영오가 대립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네요.

㉡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자신의 행동이 아닌,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맞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과거의 사연을 영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뉘두리에 해당한다.

→ 영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요.

㉤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 현장에서 보지 못한 것이지,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긴 봤어요.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은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 무대가 암전됐습니다. 불을 끄기 때문에 무대 막을 여닫지 않아도 장면을 전환할 수 있어요.

㉡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 최 씨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등장하는 이유는 찾아볼 수 없죠?

㉢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 최 씨와 영오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죄수들이 나오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맞네요.

㉣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는 장면이 맞죠?

㉤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 ㉡ 직전 장면은 '정기정'이란 곳이고, ㉣ 직후 장면은 처형장입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 < 보 기 > —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삿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①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 이 작품은 영오가 질문하고, 최 씨가 대답하고 회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맞는 설명이에요.

②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재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 <보기>에서 극중 현재가 제삿날이라고 했죠? 작품 처음 부분에 최 씨가 구월 구일 오늘이라며 외할아버지가 죽은 날을 알려줍니다. 현재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했다고 볼 수 있네요.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 사건을 재판으로 구상하면서 이 역사적 소재를 인식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④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 작품의 이중적 구조를 매개하는 역할을 최 씨가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한다?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죠.

⑤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 회상을 통해 시간 격차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상관을 알려주고 있어요. 옳은 설명이네요.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31~33]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려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난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걸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걸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걸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길길길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뻗질 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주운아, 노을자아!” 하고 돌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 시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잡자고 물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입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꽤 씁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

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끽끔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애길 했는데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흉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잣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 감 하나 장만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대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 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공동체적 유대감 파괴, 개인주의 팽배가 만연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시민들이 나타나게 돼요.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시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분화가 일어나겠죠? 이러면서 소외 계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감이 파괴된 그런 상태예요. 이들이 소설의 주요한 제재입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누가 이 소외 계층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주목해야겠죠.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리려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난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걸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걸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걸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길길길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셔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뻗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주운아, 노을자아!” 하고 둘이 함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

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서 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잡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꽤 짹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먼저 나의 아내는 영기 엄마의 배가 유난히 불렀다며 걱정을 하는 대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밤에 권 씨의 궁둥이를 걸어 차고, 권 씨는 내 궁둥이를 걸어차는 꿈을 꾸게 되네요. 아내는 권 씨네에 대해 갑자기 관심을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불러온 권 씨 아내의 아랫배에 대한 관심이지요. 권 씨 아내는 출산 예정일도 모른다며 내 아내는 길길길 웃습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아침만 되면 옷을 차려 입고 나가지만, 실상은 막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바로 권 씨인 것 같아요.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때가 되어도 자신들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정이 좋지 않음을 눈치칩니다. 확실히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권 씨네는 도움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닐 정도로 상황을 안 좋게 몰아간다고 생각해요. 권 씨네에 쌀이나 연탄 따위를 주고 오면 아내는 분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선심을 쓰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자기 처자식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 하는 권 씨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요. 셋방을 잘못 줬다며 두고 두고 지탄하고 있죠. 서로 간의 유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렇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끽끔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애길 했는데도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흥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어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 감 하나 장만 앓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짝짜꿍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결국 권 씨 부인은 해산의 날을 맞게 됩니다. 아내는 권 씨 아내의 진통이 꽤 오래되었다고 말해주죠. 하지만 권 씨네는 해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병원을 갈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권 씨를 설득해보았지만, 권 씨는 실실 웃기만 하면서 염려 없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권 씨를 설득하려 갑니다. 아내에게 들은 대로 권 씨는 웃으면서 염려마라고만 합니다. 나는 화가 나서 일이 잘못될 경우 권 씨를 원망하겠다는 모진 소리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시민인 권 씨네 집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 내가 아내의 행동에 대해 비판한 내용은 없죠?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대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권 씨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지 않아요. 막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진통이 시작된 것을 권 씨 부인의 소리를 듣고 알게 되죠?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아내의 우려를 듣고 나는 권 씨를 찾아가서 설득하게 됩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 위로해 주는 투라고 하면서 권 씨를 비꼬아 표현하고 있지 권 씨가 나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아요.

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내가 꿈의 내용은 있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
죠?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아내의 말을 통해 권 씨의 아내가 예정일도 모르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옳습니다.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을 묘사하
고 있네요.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
다.

→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
내고 있다.

→ 전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죠?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보 기> —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
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
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
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권 씨를 돕기는 하지만, 기꺼이 돕는게 아닌 마지 못해 돕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
군.

→ 권 씨는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맞네요.

㉢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
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아내는 권 씨네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셋방을 잘못
내주었다며 자탄하는 모습도 보여요. 이중적 태도로 볼 수 있
습니다.

㉣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
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돈이 없기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해산할 수밖
에 없는 모습이에요.

㉤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
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 이 말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닌, 일이 잘
못되면 나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벗어나려는 말이에
요. 개인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